

■ 특집 1 - 식민주의의 다양한 얼굴 ■

19세기 통킹만의 해적들과 프랑스 식민주의
-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초민족적 대항 권력의 역사 -

정재현

I. 머리말

1) 티에우찌(Thiệu Tri) 2년(1842년) ‘중국’ 해적들이 베트남 북부 해안에 출몰하였다. 이들은 상선뿐 아니라 관의 조운선도 약탈하면서 해안 지역을 공포에 빠뜨렸다. 관군은 그들을 붙잡지도 쫓아내지도 못하였다. 폭풍이 거세게 분 어느 날 해적선 세 척이 타인호아(Thanh Hóa)성 응옥선(Ngọc Sơn) 해변에 표류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관군이 출동하여 백 명이 넘는 해적들을 체포하고 다수의 무기를 압수할 수 있었다. 얼마 후 광옌(Quảng Yên)성에서도 관군은 해적선 두 척을 파괴하고 많은 수의 해적들을 사살하였다.¹⁾

2) 1895년 4월 24일 밤 바이뜨롱(Bái Tử Long)만 북동쪽에 있는 께바오(Ké Bào) 섬에서 께바오 탄광회사(Société anonyme française Kébao) 소속 프랑스인 직원 리오데(Lyaudet)와 그의 부인, 딸이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 해적들은 그들을 중국으로 끌고 가서 몸값을 받고자 하였다. 그 전에도 수차례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기에 인도차이나에 있는 프랑스인들의 여론은 급격히 들끓었다. 프랑스 당국은 리오데 가족의

1) 『大南寔錄正編』 第3紀 券23, 券24: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Viện Sử học, *Đại Nam Thực Lục*, 6 (Hà Nội: Nxb. Giáo dục, 2007), pp. 395, 414.

석방을 위해 중국 정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였으며, 결국 해적들과 중국 당국 간의 협상 끝에 리오데 가족은 거의 반년이 지난 뒤 풀려날 수 있었다.²⁾

3) 1933년 5월 28일 프랑스 경비대는 중국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섬인 로쭈산(Lo Chùc San) 섬 부근에 중국 해적선 열 척이 출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이튿날 경비대는 그 중 한 척을 나포하고, 중국 해적 7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배에는 120밀리미터 대포 1문이 장착되어 있었다. 로쭈산 섬 주민들은 하이난(海南) 섬에서 온 해적들 백여 명이 얼마 전부터 이 지역에 나타나서 낮에는 마을로 올라와서 노략질을 일삼고, 밤에는 바다로 나가서 어부들이 쳐놓은 어망을 집어 올려 물고기를 싹쓸이해갔다고 증언하였다.³⁾

위의 사례들은 19세기와 20세기에 베트남의 통킹만(gulf of Tonkin, <그림 1>, <그림 2> 참조) 연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해적 행위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이 사례들은 통킹만에서 해적들의 활동이 매우 끈질기게 지속된 현상이며,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시작된 뒤로도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사례들은 몇 가지 물음을 제기한다. 해적들이 오랫동안 통킹만의 주민들을 위협하고 국가 권력에 도전했다면, 베트남의 응우옌(Nguyễn 阮) 왕조나 프랑스 식민당국은 왜 그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는가? 통킹만의 고질적인 해적 문제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리고 이 해적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들인가? 그들은 단순히 야만적인 범법자 집단인가? 통킹만의 해적들은 어떻게 활동했고,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2) Evelyne Duranthon, *Les Charbonnages de Kebao (Tonkin)* (Mémoire de maîtrise, Université Paris 7, 1971), pp. 249-260.

3) Archives Nationales d'Outre-Mer(이하 ANOM으로 약칭), Gouvernement Général de l'Indochine, 40759, Rapport de Pierre Pagès, résident supérieur par intérim du Tonkin, à Pierre Pasquier, 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21 juin 1933.

19세기 통킹만의 해적들과 프랑스 식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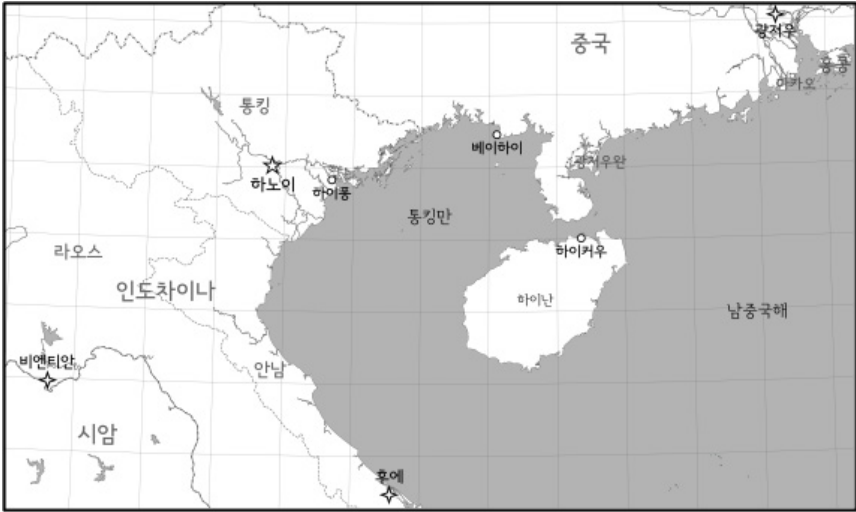


그림1 1900년경 통킹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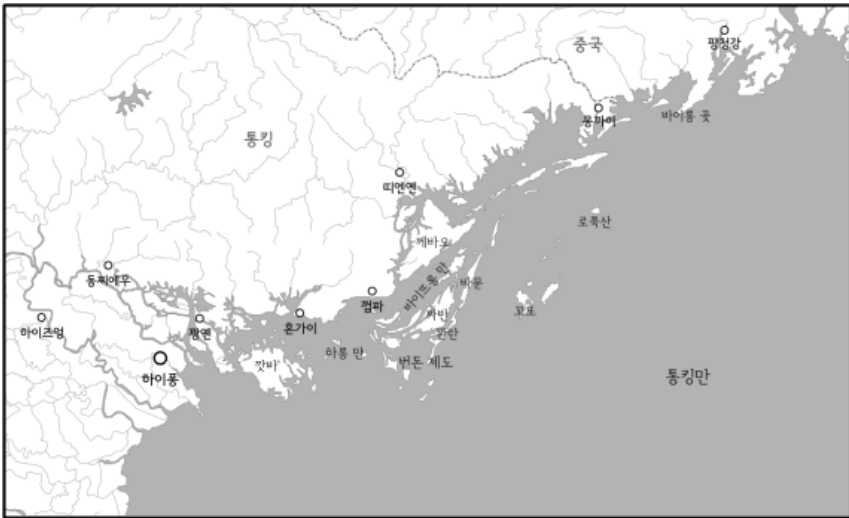


그림2 1900년경 통킹만(확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몇몇 선행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다이앤 머레이⁴⁾와 로버트 앤터니⁵⁾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통킹만과 광둥(廣東) 해안가를 휩쓴 해적 집단을 연구하였다. 그 외에 부드영루언과 놀라 쿠크는 19세기 통킹만의 해상 무역과 해적들을⁶⁾, 응우옌티미하인은 19세기 전반 응우옌 왕조의 해적 단속 활동을 연구하였으며,⁷⁾ 장레이핑도 19세기 베트남과 중국 간의 무역 및 안보 관계를 주제로 한 박사논문에서 해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⁸⁾ 그렇지만 프랑스 식민주의와 관련하여 통킹만의 해적 문제를 파헤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프랑스인들이 ‘해적(pirate)’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바다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흑기군(黑旗軍)이나 내륙의 다른 비적(匪賊) 집단들을 다룬 연구들, 또는 프랑스인들이 마찬가지로 ‘해적’이라 지칭했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적 성격의 의병이었던 이들에 관한 연구들을 제외하면 식민지 시기 베트남의 바다에서 활동한 해적들에 주목한 연구는 고작 둘 뿐이다. 미슐린 레사르는 당시 통킹만 해적들의 가장 주된 활동 방식이었던 여성과 아이의 납치와 인신매매를 연구하였다.⁹⁾ 한편 스테판 에클로프 아미렐은 최근에 출판한 저서에서 동남아시아의 해적들에 대한 유럽 식민 열강의 인식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통킹만의 해적 문제를 필리핀 남부 술루(Sulu) 해와 므라카(Melaka) 해협의 해적 문제와 비교하였다.¹⁰⁾

- 4) Dian H. Murray, 이영옥 옮김, 『그들의 바다: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서울: 심산, 2003).
- 5) Robert J. Antony, *Like Froth Floating on the Sea: The World of Pirates and Seafarers in Late Imperial South China* (Berkele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
- 6) Vũ Đường Luân & Nola Cooke, “Chinese Merchants and Mariners in Nineteenth-Century Tongking”, Nola Cooke, Tana Li & James A. Anderson, ed.,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 7) Nguyễn Thị Mỹ Hạnh, “The Anti-Piracy Activities of the Nguyen Dynasty in the South China Sea, 1802-1858”,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31-1(2019).
- 8) Zhang Leiping, *Trade and Security in Sino-Vietnamese Relation (1802-1874)*(Ph. D.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08).
- 9) Micheline Lessard, *Human Trafficking in Colonial Vietnam* (New York: Routledge, 2015).
- 10) Stefan Eklöf Amirel, *Pirates of Empire: Colonisation and Maritime Violence in Sou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9세기 후반 이후 통킹만의 해적들에 대한 연구가 이전 시기에 비해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이 시기에 들어 해적의 활동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세기가 시작된 뒤로 통킹만의 해적들은 더 이상 해상 무역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했듯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이 지역에서 해적을 완전히 몰아냈다고 보는 것은 설부른 판단이다.

식민지 시기 베트남의 역사를 서술할 때 해적 문제가 흔히 누락되는 더 큰 이유는 한편으로 식민주의의 폭력과 착취, 다른 한편으로 그에 맞선 민족주의적 저항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이 주제에 적절한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¹¹⁾ 해적들은 프랑스 식민 지배의 확립에 강력한 걸림돌이 되긴 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과 그들이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으로 인해 그들의 활동을 단순히 반식민주의 저항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식민주의와 해적 활동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해석의 문제를 내포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적들의 행위를 재해석하고자 시도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적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범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도서부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이들이 해적을 지역 술탄들의 후원을 받는 명예로운 활동으로 인식하였다.¹²⁾ 이러한 이유에서 앤서니

11) 예를 들어 2013년에 베트남 사학원(史學院)이 총 15권으로 편찬한 베트남사 통사 중 6권은 약 460쪽에 걸쳐 식민지 시기 초기인 1858~1896년을 다루는데, 그 중 해적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Viện Sử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6: Từ Năm 1858 Đến Năm 1896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2013).

12) John Kleinen & Manon Osseweijer, ed., *Pirates, Ports, and Coasts in Asi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0); Robert J. Antony, ed., *Elusive Pirates, Pervasive Smugglers: Violence and Clandestine Trade in the Greater China Sea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조흥국 최용태, 「19세기 이전 동남아시아 해적에 관한 역사적 고찰」, 『동남아연구』, 21권 2호(2011).

리드나 제임스 워렌은 그들을 ‘해적’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서양의 관점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도덕적 상대론’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의 해상 전쟁의 한 가지 방식이자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행위를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범죄인 ‘해적질’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이는 유럽의 세력 팽창을 방해하는 아시아의 해상 세력을 깎아내림으로써 식민지 정복을 정당화하려는 제국주의적 동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렇지만 이러한 ‘도덕적 상대론’을 더 밀고 가면 해적들이 보인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해적들로부터 재산과 인신의 안전을 위협받은 이들에게 분명히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서양어의 ‘해적(pirate)’에 상응하는 개념이 아시아에 없었던 것도 아니다. 베트남에서는 해적을 바다의 ‘적(賊 giặc)’ 혹은 ‘해비(海匪 hải phi)’라 불렀으며, 해적에 대한 국가 권력의 시각은 프랑스 식민당국이나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¹⁴⁾ 에클뢰프는 아시아의 해적들에 ‘해적’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이 글에서는 아시아의 해적들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서양 중심적 관점에 의해 굴절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에 대해 ‘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¹⁶⁾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적들의 폭력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들을 물리치고 해상의 안전을 이룩한 식민당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식민주의가 행한 더 큰 폭력성을 간과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양 극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이 글은 해적들의 활동과 이들을 제압하고자 한 식민당국의 노력을 경쟁적인 권력관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에릭 홉스봄은 ‘산적(bandit)’을 “권력과 법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거나 혹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함으로써 경제적,

16)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논쟁은 서양어가 사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해적질(piracy)’과 국가 권력의 인정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략(privateering)’을 구분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적, 정치적 질서에 도전”하는 자라고 설명하였다.¹⁷⁾ 이 명제는 바다의 ‘산적’인 해적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모든 해적이 의식적으로 국가 권력에 도전한 것은 아니었다.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분명히 그런 의도가 뚜렷한 이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식을 지녔든 그렇지 않든 해적 집단은 국가 권력에 도전하거나 적어도 국가 권력과 경쟁하는 대항 권력의 성격을 띠었다.¹⁸⁾ 19세기 후반 중국과 접경한 베트남 북부 산간지대에서 활동한 비적 집단들을 연구한 브래들리 캠프 데이비스는 “권력은 흔히 폭력을 의미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⁹⁾ 이러한 의미에서 통킹만의 해적들을 다루는 이 글은 그가 연구했던 중국-베트남 접경지대 ‘제국의 비적들(imperial bandits)’이 형성한 ‘폭력의 문화’가 ‘바다의 접경지대(water frontier)’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²⁰⁾

‘바다의 유목민’²¹⁾인 해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국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도 제공한다. 응우옌 왕조나 프랑스 식민당국의 문서들은 통킹만에서 활동한 해적들이 마치 모두 중국인인 것처럼 서술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인 해적도 적지 않았으며, 중국인 해적 무리에 베트남인이 가담하는 경우도 많았다.²²⁾ 게다가 중국인이라 해도 그 안에는 다양한 종족적 지역적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섞여 있었다.²³⁾ 앤터니가 지적한 것처럼 “바다는 본래 초민족적 공간이므로 해적질과

17) Eric Hombbsawm, 이수영 옮김, 『밴디트: 의적의 역사』 (서울: 민음사, 2004), 33쪽.

18) Eric Fr con, *Pavillon noir sur l'Asie du Sud-Est* (Paris: L'Harmattan, 2002), p. 11.

19) Bradley Camp Davis, *Imperial Bandits: Outlaws and Rebels in the China-Vietnam Borderland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7), p. 12.

20) Nola Cooke & Tana Li, ed., *Water Frontier: Commerce and the Chinese in the Lower Mekong Region, 1750-1880*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21) Dian H. Murray, 『그들의 바다』, 33쪽.

22) Zhang Leiping, *Trade and Security in Sino-Vietnamese Relation*, p. 147.

23) Tana Li, “The Water Frontier: An Introduction”, Nola Cooke & Tana Li, ed., *Water Frontier*, pp. 5-8.

밀수는 다종족적이고 다민족적인 사업이었다.”²⁴⁾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 해안 지역은 ‘변경지역’이자 ‘대립의 장소’이고 ‘교차수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²⁵⁾ 특히 ‘작은 지중해’로 비유되는 통킹만은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었다.²⁶⁾ 앤터니가 지적하듯 “통킹만 지역에 살던 토착민들에게 국경은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²⁷⁾ 해적은 육지의 국가 권력이 그어 놓은 국경을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제국의 변경을 초국가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들 중 하나였다.²⁸⁾

해적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료의 문제이다. 해적들은 본래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그들에 대해 알려주는 문서는 대부분 그들의 적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해적에 관한 기록은 중국과 베트남의 문헌이든 프랑스나 다른 식민 열강의 문헌이든 기본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프랑스인들이 남긴 사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프랑스 식민 지배에 도전한 통킹만 해적들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이 무의미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본론 첫 번째 장에서는 먼저 18세기 말부터 1870년대 초까지 상황을 개괄하면서 통킹만 해적들의 성쇠 요인과 활동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장에서는 프랑스가 북부 베트남에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1870년대 중엽부터 1880년대 초까지 프랑스의 해적 단속 활동의 목적과 그 한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전락한 1883년부터 북부 베트남의 ‘평정(pacification)’이 완료되는 1890년대까지 통킹만의 해적들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으며, 프랑스 식민당국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검토할 것이다.

II. 통킹만의 해적, 오랜 역사와 19세기 중엽의 상황

통킹만은 서쪽으로 베트남 북부, 북쪽으로 광시(廣西)성, 동쪽으로 레이저우(雷州) 반도와 하이난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다.²⁹⁾ 바다를 통한 활발한 교역은 그 기원을 찾기 힘들 만큼 오래전부터 이곳 바다에서 해적 활동을 고무하였다. 또한 강과 바다의 수많은 항로들, 도망치기 좋은 해안, 피신처로 삼을 수 있는 수많은 섬들, 내지와 해안을 분리하는 험준한 산맥도 해적들의 활동에 안성맞춤이었다.³⁰⁾ 앤터니에 따르면 “주로 해적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폭력과 약탈은 15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중국과 베트남 간의 해상 접경지대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통킹만에서... 해적질은 실제로 이 해상 접경지대의 내재적인 특징이며, 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가져온 역동적이고 중요한 힘이었다.”³¹⁾

18세기 말에 통킹만의 해적들은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 배경 중 하나는 이들이 베트남에서 일어난 떠이선(Tây Sơn 西山) 반란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다. 16세기 중엽 이래 베트남은 후(後) 레(Lê 黎) 왕조의 통치 하에 있었으나, 북부에서는 쩌(Trịnh 鄭) 씨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남부에서는 응우옌씨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³²⁾ 떠이선 반군은 이들에 대한 싸움에 해적들을 끌어들이었다.³³⁾ 떠이선 정권에 합류한 해적들은 해상 전투에 참여하는

29) Tana Li,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pp. 1-2.

30) Dian H. Murray, 『그들의 바다』, 24쪽.

31) Robert J. Antony, “Violence and Predation on the Sino-Vietnamese Maritime Frontier”, p. 87.

32)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229-246쪽.

33) 찰스 휠러에 따르면 ‘민호영(明香)’이라 불리던 베트남에 정착한 중국 유민들이 중국 해적들을 떠이선 정권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harles Wheeler, “Identity and Function in Sino-Vietnamese Piracy: Where Are the Minh Hương?”,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16(2012).

한편, 중국 해안에서 물자를 약탈해 와서 그 중 일부를 떠이선 정권에 바쳤다. 그 대가로 그들은 관작을 받았고, 안전한 근거지와 약탈품을 처분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받았다. 해적들은 떠이선 정권의 해군력의 증추였고, 정권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록 해적들이 떠이선 운동의 패배를 막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조직력, 그리고 강력한 선박과 무기 덕분에 그들은 그 후로도 한동안 통킹만과 광둥 해안가에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³⁴⁾

중국 남부를 휩쓸던 해적 연맹은 내분에 빠지면서 1810년에 청조에 투항하였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1802년에 떠이선 정권을 굴복시키고 베트남을 통일한 응우옌 왕조가 떠이선 반군과 협력했던 해적 잔당을 분쇄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통킹만에서 해적 행위는 19세기 초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³⁵⁾ 그렇지만 해적들의 활동은 1830년대부터 다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프랑스인 선교사 피에르 르토르(Pierre Retord)는 1851년에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작년에는 해적들이 통킹[북부 베트남]과 코친차이나[남부 베트남]의 모든 해안을 유린하였다. 그들은 50~60척씩 배를 지어 다녔다. 작은 배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태우고 약탈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며, 큰 배들은 강력한 무장을 갖춘 채 많은 선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전투와 약탈을 벌였다.”³⁶⁾

르토르가 언급한 해적은 당시에 중국 남부 바다에서 악명을 떨쳤던 삼응자이(十五仔 Shap Ng-tsai)의 무리이다. 삼응자이의 해적단은 홍콩

34) Dian H. Murray, 『그들의 바다』, 61~93쪽; Robert J. Antony, “Maritime Violence and State Formation in Vietnam”, Stefan Eck, f Amirel & Leos M ller, ed., *Persistent Piracy: Maritime Violence and State-Formation in Global Historical Perspective* (Houndmill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4).

35) Charles Wheeler, “Maritime Subversions and Socio-Political Formations in Vietnamese History”, Michael Arthur Aung-Thwin & Kenneth Hall, ed.,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2011).

36) “Missions du Tong-King”,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23 (1851), p. 277.

주변의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베트남 북부까지 세력을 떨쳤다. 1849년 9월과 10월에 영국 해군은 중국 해군과 협력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다. 삽옹자이는 약 60척의 배를 이끌고 하이난 해협을 지나 베트남의 하이즈엉(Hải Dương)성까지 도주하였으나, 이곳까지 쫓아온 영국 해군에 의해 격파되었다.³⁷⁾ 육지로 도망친 이들은 팡옌성 포정사(布政使**bố chính sứ**) 응우옌코아죽(Nguyễn Khoa Dục)이 이끄는 베트남 관군에 의해 사살되거나 생포되었다.³⁸⁾ 그렇지만 삽옹자이 무리를 소탕했다고 해서 해적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곧 새로운 무리들이 나타났으며, 해적들은 통킹만에서 여전히 번성했다.

해적 행위가 성행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³⁹⁾ 하나는 정치적 상황이다. 국가 권력의 약화가 바다에서 무법자들이 판치는 상황을 조장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뜨득(Tự Đức) 연간(1847~1883)에 이르러 응우옌 왕조는 안팎으로 다양한 위기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북부 지역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감소하였다.⁴⁰⁾ 이 시기에 베트남이 겪은 문제들을 모두 프랑스 식민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프랑스 식민주의가 어려움을 가중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1859년에 프랑스군이 곡창지대인 남부를 점령하면서 곡물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세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결국 남부 지방을 프랑스에 내주자 응우옌 왕조에 대한 내부의 비판과 도전도 거세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서양 열강의 잇따른 침입(1차 아편전쟁 1839~1842, 2

37) Jonathan Chappell, "Maritime Raiding, International Law and the Suppression of Piracy on the South China Coast, 1842-1869",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40-3(2018).

38) 『大南寔錄正編』 第4紀 券4: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Viện Sử học, *Đại Nam Thực Lục*, 7 (Hà Nội: Nxb. Giáo dục, 2007), p. 140.

39) Ger Teitler, "Piracy in Southeast Asia: A Historical Comparison", *Maritime Studies*, 1-1(2002), pp. 67-68.

40) Nguyễn Thế Anh, *Monarchie et Fait Colonial au Việt-Nam (1875-1925): Le Crépuscule d'un Ordre Traditionnel* (Paris: L'Harmattan, 1992), pp. 13-54; 노영순, 「베트남 뜨득 황제 전반기의 관료군주제 고찰 군주와 고위관료가 내외외환, 개혁, 실지회복에 대처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총』, 76집(2012).

차 아편전쟁 1856~1860)과 태평천국 운동(1851~1864)을 비롯한 크고 작은 반란으로 인해 당국이 변방의 해적들에 미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더군다나 전란으로 발생한 유민들과 태평천국군의 잔당들이 해적으로 흡수되었다.⁴¹⁾ 통킹만의 양편에서 나타난 국가 권력의 약화는 변방에서 대항 권력의 성장을 초래하였다.

해적들이 생겨나는 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는 경제적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한다. 어떤 학자들은 무역의 증가가 해적 활동을 부추긴다고 본다. 약탈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페르낭 브로델에 따르면 “상선이 없으면 해적도 없다.”⁴²⁾ 워렌은 “18세기 말 장거리 해상 약탈 혹은 지역적 차원의 ‘해적질’ 증가는 중국 무역과 연결된 동남아시아 경제 호황의 발전과 강력한 상호 관계를 지닌다고 주장했다.”⁴³⁾ 반대로 해적을 빈곤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최하위계층이 해적과 같은 불법행위에 빠지는 것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J. L. 앤더슨은 “해적질은 해안가의 공동체가 빈곤에 빠지거나 경제적 변동에 취약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 당국의 법보다 현지의 전통적 관습이 더 존중받을 때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였다.⁴⁴⁾

그렇다면 경제적 변화와 19세기 중엽 통킹만의 해적 증가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1차 아편전쟁 이후 개항장들이 생겨나고,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면서 중국 남부에서는 서양 선박의 왕래가 늘어났다. 그 결과 특히 광둥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41) Vũ Đường Luân & Nola Cooke, “Chinese Merchants and Mariners”, p. 153; Zhang Leiping, *Trade and Security in Sino-Vietnamese Relation*, p. 146.

42) Fernand Braudel, 남중국 율은주 옮김,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II권 집단적 운명과 전체적 움직임』 (서울: 까치, 2017), 690쪽.

43) James F. Warren, “A Tale of Two Centuries”, p. 125.

44) J. L. Anderson, “Piracy and World History: An Economic Perspective on Maritime Predation”, *Journal of World History*, 6-2(1995), p. 199.

동시에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⁴⁵⁾ 이는 경제적 변화 속에서 낙오한 자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적인 활동에 모험을 걸어볼만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통킹만의 상황은 그와 달랐다. 19세기 중엽부터 증기선이 동아시아 바다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통킹만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국제 무역로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비록 소형 정크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내 무역은 여전히 활발했지만, 이 지역의 경제적 활기는 확실히 예전만 못했다.⁴⁶⁾ 통킹만에서는 부의 유혹보다 절박한 생계 조건이 해적이 되는 더 큰 동기가 되었다.

이처럼 한 지역 내에서 또는 인접한 두 지역 사이에서 번영과 빈곤이 공존하는 상황은 해적이 생겨나는 이상적인 조건이었을 뿐 아니라, 해적들 내에서 상이한 층위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19세기 중엽 통킹만에는 두 가지 유형의 해적 무리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⁴⁷⁾ 한 쪽 끝에는 삽응자이의 무리처럼 수백 수천 명의 사람과 수십 척의 배를 거느린 대규모 해적단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번영하는 광둥 해안에서 온 외래 세력이었다. 다른 쪽 끝에는 어부나 뱃사람이었다가 생계가 곤란해지자 뜻이 맞는 사람 몇 명이 뭉쳐서 해적질을 벌이는 소규모 무리들이 있었다. 통킹만의 토착 해적들은 대개 후자였다. 이러한 이들은 해적질을 시작한 후로도 고기잡이나 다른 합법적 불법적인 활동을 병행하곤 했다.⁴⁸⁾

삽응자이의 무리 같은 대규모 해적단은 대범하게 서양 선박을 습격하기도 했으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해역을 지나는 배들에게 보호세를 뜯어내기도 했다. 반면에 소규모 해적들은 주로 어선이나 소형 상선을 노렸다. 무장을 갖춘 대형 상선을 공격하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큰 반면에,

45) Zhang Leiping, *Trade and Security in Sino-Vietnamese Relation*, pp. 140-141.

46) Vũ Đường Luân & Nola Cooke, "Chinese Merchants and Mariners", pp. 143-147.

47) Robert J. Antony, "Violence and Predation on the Sino-Vietnamese Maritime Frontier", p. 105.

48) *Ibid.*, p. 100.

작은 먹잇감은 큰 이익이 되지는 않아도 단순한 무기와 적은 인원으로라도 비교적 손쉽게 약탈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⁴⁹⁾

그러나 통킹만 해적들의 가장 특징적인 활동 방식은 해안가에 상륙하거나 심지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을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납치하는 것이었다.⁵⁰⁾ 이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해적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 도서부의 해적들이 주로 노동력으로 활용할 노예를 생포하고자 했다면, 통킹만의 해적들은 그보다는 중국에 신분감이나 하녀, 매춘부로 팔아넘길 여성과 아이들을 납치하였다. 이러한 인신매매에는 중국 상인들과 관리들, 심지어는 베트남 관리들마저 연루되어 있었다. 값나가면서도 약탈할만한 재화가 달리 많지 않은 통킹만 연안에서 인간은 언제나 후한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⁵¹⁾

그렇지만 해안 지역이 해적의 약탈 대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통킹만에 존재하는 수많은 해안가 마을과 섬 중 일부는 해적들의 활동 근거지였다. 18세기 말에는 베트남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장평(江平)이 대표적인 해적 소굴로 악명을 떨쳤다.⁵²⁾ 1802년에 응우옌 왕조가 장평을 파괴했지만, 통킹만에는 그밖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였다. 베이하이(北海) 남쪽에 위치한 웨이저우(澗州) 섬과 친저우(欽州)만에 있는 룡문(龍門) 섬이 그러했고,⁵³⁾ 베트남 영토 내에서는 캣바(Cát Bà) 섬이나 번돈(Vân Đồn) 제도, 꼬뜨(Cô Tô) 섬 등이 대표적인 ‘해적섬’이었다. 이러한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권력이 미치지 힘든 곳이었다. 이곳에서

49) J. L. Anderson, “Piracy and World History”, pp. 197-198.

50) Jean-Louis Margolin, “Piraterie en Asie Orientale (XIVe-XIXe Siècle)”, Gilbert Buti & Philippe Hroděj, dir., *Histoire des Pirates et des Corsaires: De l'Antiquité à Nos Jours* (Paris: CNRS Éditions, 2016), p. 351.

51) Micheline Lessard, *Human Trafficking in Colonial Vietnam*.

52) Robert J. Antony, “Giang Binh: Pirate Haven and Black Market on the Sino-Vietnamese Frontier, 1780-1802”, John Kleinen & Manon Osseweijer, ed., *Pirates, Ports, and Coasts in Asia*.

53) Robert J. Antony, “Violence and Predation on the Sino-Vietnamese Maritime Frontier”, pp. 95-97.

해적들은 관군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배를 수리하고, 무기와 생필품을 공급받으며, 약탈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해적들을 충원했다. 그리고 해적들이 이러한 근거지를 필요로 하듯 이러한 섬들도 해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 “그들[해적들]의 활동은 그곳[중국-베트남 접경지대]에 사는 중국인 베트남인 공동체들의 삶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현지인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적질이나 밀수에 연루되어 있었다.”⁵⁴⁾ 요컨대 ‘바다의 접경지대’ 주민들과 해적들은 공생 관계였다.

해적이 발생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궁핍한 삶에 있고, 해적들이 국가 권력이 미치지 힘든 외딴 곳에 근거지를 두는 한 그들을 소탕하기란 매우 어려운 노릇이었다. 응우옌 왕조는 해적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순찰선을 띄우고, 해안 마을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해적을 단속하기도 했으며, 붙잡은 해적들을 극형에 처하는가 하면 자진 투항한 이들에게는 벌을 면해주기도 하였다.⁵⁵⁾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도 별 효과가 없었다. 조정은 해적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관리들을 강등하거나 곤장을 때리는 등 엄격히 징계하였는데, 이는 해적들의 활동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 해적들의 활동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베트남 조정은 1865년에 코친차이나의 프랑스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⁵⁶⁾

1. 프랑스 제국주의적 팽창 시도와 통킹만의 해적 문제(1870~1880년대)

코친차이나 총독 피에르폴 들라그랑디에르(Pierre-Paul de la Grandière, 재임 1863~1868)는 응우옌 조정의 요청에 따라 해적 퇴치를

54) Vũ Đường Luân & Nola Cooke, “Chinese Merchants and Mariners”, p. 152.

55) Zhang Leiping, *Trade and Security in Sino-Vietnamese Relation*, pp. 226-247; Nguyễn Thị Mỹ Hạnh, “The Anti-Piracy Activities of the Nguyen Dynasty”.

56) Tsuboi Yoshiharu, *L'empire Vietnamien face à la France et à la Chine* (Paris: L'Harmattan, 1987), p. 121..

위해 통킹만에 군함을 파견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협상과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총독이 바뀌고, 프랑스 본국에서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이 계획은 계속해서 보류되었다. 통킹만 군함 파견은 쥘 뒤프레(Jules Dupré, 재임 1871~1874)가 코친차이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다시 추진되었다. 북부 베트남으로 프랑스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그는 그 첫 단계로 에밀리앵 세네즈(Émilien Senez) 대위에게 중형 쾌속함(avisos) 부레인(Bourayne) 호를 이끌고 통킹만으로 가서 연안을 탐사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⁷⁾

1872년 1월 23일에 사이공을 출항한 부레인 호는 베트남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2월 6일에 하롱(Hà Long)만 서쪽에 위치한 깃바 섬 부근에서 해적선들을 맞닥뜨렸으며, 그 중 한 척을 나포하고 한 척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적선을 쫓던 부레인 호는 그 과정에서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던 자연항에 우연히 진입하였다. 세네즈는 이곳이 “해적 행위의 발전과 보호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고, “해적 행위에 맞서는 첫 번째 조치는 깃바 섬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⁸⁾ 같은 해 10월에 부레인 호는 다시 통킹만 순찰에 나섰으며, 베트남 중부 해안에서 해적들을 상대로 세 차례 전투를 벌였다. 세네즈는 그 과정에서 해적선 수 척을 침몰시키고, 해적 5백 명 이상을 몰살시켰으며, “안남 정부를 위해서 넉 달 전부터 봉쇄되어 있던 항구들을 해방시켜주었다”며 의기양양하게 보고하였다.⁵⁹⁾ 부레인 호가 거둔 전과는 프랑스 언론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만, 실제로 통킹만에서 해적들의 활동은 그로부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57) Frédéric Romanet du Caillaud, *Histoire de l'Intervention Française au Tong-King de 1872 à 1874* (Paris: Challamel aîné, 1880), pp. 33-35.

58) Émilien Senez, “De Saigon au Nord du Tonquin: Voyage du *Bourayne* (23 Janvier-16 Février 1872)”, *Revue Maritime et Coloniale*, 34(1872), p. 355.

59) Émilien Senez, “Rapport Nautique sur l'Exploration des Côtes de Cochinchine et du Golfe du Tonquin: Rapport du Commandant de l'Aviso le *Bourayne* (Octobre et Novembre 1872)”, *Revue Maritime et Coloniale*, 37(1873), p. 32.

북부 베트남을 장악하고자 했던 뒤프레 총독의 계획은 베트남군의 완강한 저항과 프랑스 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그 후 1874년 3월 15일에 프랑스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체결한 새로운 조약(제2차 사이공 조약)은 양국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인 2조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은 안남 왕의 주권과 모든 외국 세력에 대한 그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고, 그에게 도움을 약속하며, 그가 요청할 때 아무 대가 없이 그의 국가에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의 국가를 방어하고, 왕국의 해안가 일부를 유린하는 해적들을 소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다(2조).”⁶⁰⁾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사유서는 통킹만의 해적을 베트남 북부의 산간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흑기군⁶¹⁾과 함께 현재 베트남이 처한 두 가지 위험 요소로 꼽았다.⁶²⁾ 제2차 사이공 조약은 베트남을 사실상 보호령으로 삼고, 더 많은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바람을 담은 조약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상 교역을 방해하는 해적들을 소탕함으로써 안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1880년 전까지 프랑스 당국은 실제로 해적들을 격퇴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해적들은 여전히 통킹만의 어업과 교역을 마비시키고, 해안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1874년 3월에 광저우(廣州) 주재 프랑스 영사는 코친차이나 총독에 보낸 보고서에서 약 2천명에 이르는 ‘중국인’ 해적 무리가 번돈 섬에 자리 잡은 채 이 해역을 지나는 배들을 세워서 통행증 발급을 대가로 돈을 갈취하며, 이를 거부한

60) Lucien de Reinach, ed., *Recueil des traités conclus par la France en Extrême-Orient, 1: 1684-1902* (Paris: Ernest Leroux, 1902), p. 146.

61) 흑기군은 1860년대에 베트남의 왕권 약화를 틈타 중국에서 넘어와 통킹 북부의 산간지대를 점령한 여러 무장 집단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무리였다. 이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응우옌 왕조는 흑기군의 우두머리인 류용푼(劉永福)에게 관작을 주어 북부 지역의 여러 반란을 진압하고, 프랑스의 침입에 맞서는 데 흑기군을 활용하였다.

62) *Journal officiel de la R publique fran aise*, 4 aout 1874.

배는 압류한다고 알렸다.⁶³⁾ 또한 이듬해 5월에는 베트남인 기독교도 80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프랑스인 선교사 마리(Marie) 신부가 해적을 만나 죽임을 당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중국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⁶⁴⁾ 해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1877년에 베트남의 상박(商舶) 대신 응우옌반뜨엉(Nguyễn Văn Tường)은 “빈딘(Bình Định)부터 투란(Tourane, 현재의 다낭) 북쪽에 이르는 해안에 중국 해적선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교역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코친차이나 총독에게 해적들을 쫓을 수 있는 배 한 척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⁵⁾ 또한 베트남 당국은 “해적들의 소굴”인 깃바 섬에 요새를 설치하고, 프랑스 군대를 주둔시켜 달라는 요청도 전달하였다.⁶⁶⁾

이처럼 베트남 당국이 “해상에서 자국 정부의 무력함”⁶⁷⁾을 드러내는 치욕을 무릅쓰면서 프랑스의 도움을 구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였지만, 프랑스 정부는 당장 어떤 행동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제2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 해적 소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음에도 프랑스 정부가 톡킹만의 해적 단속에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베트남에 대해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를 놓고 프랑스 정치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련이 있다.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에 필요한 군사력의 투입과 재정

63) ANOM, Amiraux, 14086, Rapport de Philibert Dabry de Thiersant, consul de France à Canton [Guangzhou], à l’amiral Jules Dupré,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11 mars 1874.

64) ANOM, Amiraux, 14090, Rapport de Philibert Dabry de Thiersant, consul de France à Canton [Guangzhou], à l’amiral Victor Duperré,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5 aout 1875.

65) ANOM, Amiraux, 10459, Rapport de Paul-Louis-Félix Philastre, chargé d’affaires de France à Hué, à l’amiral Victor Duperré,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3 mai 1877.

66)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ocuments Diplomatiques: Affaires du Tonkin, I: 1874-décembre 1882* (Paris: Imprimerie nationale, 1883), p. 80: Rapport de l’amiral Jules Lafont,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à l’amiral Alexis Pothuau, minist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 21 mai 1878.

67) ANOM, Amiraux, 10459, Rapport de Paul-Louis-Félix Philastre, 3 mai 1877.

지출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879년에 베르나르 조레기베리(Bernard Jaur guiberry)가 해군식민지부 장관에 임명되고, 샤를 르미르드빌레르(Charles Le Myre de Vilers)가 코친차이나 총독에 부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둘은 베트남 북부를 지배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⁶⁸⁾ 뒤프레 총독 때도 그랬듯 해적은 통킹만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편리한 명분이 되었다. 사실 제2차 사이공 조약으로 하노이와 하이퐁이 대외 무역에 개방되었음에도 통킹만에서 프랑스 선박의 왕래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로서는 굳이 군함을 파견해서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프랑스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지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는 크지 않았다. 군함 파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보다는 북부 베트남 지배의 일차 단계로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정부가 해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중국의 광둥 함대가 통킹만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르미르드빌레르 총독은 1880년 1월 24일에 본국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해적들이 안남 해안을 유린하고 있으며, 우리 순양함들이 없는 가운데 중국 군함들이 그들의 깃발을 휘날리며 바다와 육지에서 약식 처형을 일삼는다”며 우려를 표하였다.⁶⁹⁾ 통킹만의 해적들은 베트남뿐 아니라 중국의 선박과 마을도 가리지 않고 습격하곤 하였으므로, 그들은 중국 당국에게도 큰 골칫거리였다. 해적들은 베트남 영토 안에 근거지를 둔 채 중국 영토를 침입하거나, 반대로 중국 영토 안에 근거지를 둔 채 베트남 영토를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은 해적들이 아니라 해적들을 진압해야 하는 국가 권력에게만 거주장스러운

68) Charles Fourniau, *Vietnam: Domination Coloniale et Résistance Nationale, 1858-1914* (Paris: Les Indes savantes, 2002), pp. 296-297.

69)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ocuments Diplomatiques: Affaires du Tonkin, 1: 1874-décembre 1882, p. 132: Rapport de Charles Le Myre de Vilers,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à l'amiral Bernard Jauréguiberry, minist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 24 janvier 1880.

장애물이었다. 그러므로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당국이 중국 당국과 협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프랑스 입장에서 “우리의 보호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곤욕스러운 상황이었다.⁷⁰⁾

그리하여 1880년 초에 중형 쾌속함 뒤쿠에딕(Ducouëdic) 호와 소형 포함 마쉬(Massue) 호가 퉁킹만에 파견되었다. 두 선박은 1880년 2월 말과 3월 초에 두 차례나 해적선을 만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사건에 관해 하이퐁 주재 프랑스 영사 루이 드 샹포(Louis de Champeaux)가 코친차이나 총독에게 올린 보고서는 해적들의 활동 방식, 프랑스군의 해적 진압 방식, 해적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담고 있다.⁷¹⁾

1880년 2월에 뒤쿠에딕 호와 마쉬 호는 해적선 3척을 나포하고 2척을 파괴하였으며, 해적 12명을 체포하였다. 같은 해 3월에도 프랑스 해군은 해적선 1척을 나포하고, 해적 15명을 체포하였다. 나포된 배에 타고 있던 다른 해적들은 육지에 내려서 도망갔기에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 프랑스군이 이들을 뒤쫓지 못한 까닭은 전임 코친차이나 총독 쥘 라퐁(Jules Lafont)이 베트남 당국과 충돌을 우려하여 베트남 영토에 상륙해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금했었기 때문이다.⁷²⁾ 해상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해적선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음은 분명하지만, 해적을 일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70) ANOM, Indochine Ancien Fonds, A50(5), Rapport de Charles Le Myre de Vilers,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à l'amiral Georges Cloué, minist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 7 janvier 1881.

71) ANOM, Indochine Ancien Fonds, A50(5), Rapport de Louis Palasme de Champeaux, consul de France à Hải Phòng, à Charles Le Myre de Vilers,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24 mars 1880.

72) ANOM, Indochine Ancien Fonds, A50(5), Lettre du chef de division commandant la station navale de Cochinchine, à Charles Le Myre de Vilers,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12 novembre 1881.

2월에 나포된 해적선에서는 남딘(Nam Định)성의 짜리(Trà Lý)에서 납치당한 여성과 아이 48명이 타고 있었다. 발견 당시에 그들은 5~6세 굶피터 밖에 되지 않는 선창에 빼곡히 실려 있었으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뼈적 마르고 쇠약해진 상태”였다.⁷³⁾ 운 좋게 프랑스 해군에 의해 구출되지 않았다면 중국으로 팔려갔을 것이다.

2월에 체포한 해적 12명 중 11명은 중국인이었고, 1명은 베트남인이었다. 다시 말해 베트남 당국이나 프랑스 당국이 ‘중국 해적’이라 불렀던 이들이 순수하게 중국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3월에 체포한 15명 가운데에도 베트남인 2명이 끼어 있었다. 이 두 베트남인은 자신들이 해적들에게 납치당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해적이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극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적들이 포로를 자신들의 무리에 끌어들이는 사례는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⁷⁴⁾ 여하튼 중국인이 주축이 된 해적 무리에서 베트남인은 정보 제공자로서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체포된 해적들의 구성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점은 처음 붙잡힌 12명 중에 여성도 한 명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해적 우두머리의 정부(情婦)였는데, 정부를 배에 태우는 것은 해적 우두머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통념과 달리 여자가 해적선에 타는 것은 금기시되지 않았고, 19세기 초에는 여성이 대규모 해적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사례도 있었다.⁷⁵⁾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적들이 육지의 사람들보다 더 평등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⁷⁶⁾

해적들을 인도받은 베트남 당국은 그들 대부분을 극형에 처하였다. 처음

73) ANOM, Indochine Ancien Fonds, A50(5), Rapport de Louis Palasme de Champeaux, 24 mars 1880.

74) 머레이의 연구는 18세기 말의 해적들 중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Dian H. Murray, 『그들의 바다』, 85쪽.

75) Dian Murray, “One Woman’s Rise to Power: Cheng I’s Wife and the Pirates”, *Historical Reflections/Réflexions Historiques*, 8-3(1981).

76) Robert J. Antony, “Giang Binh”, pp. 44-45.

체포된 12명 중 9명이, 나중에 체포된 15명 중 12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중 앞서 언급한 여성을 제외한 모두가 참형에 처해졌고, 이 여성은 그보다 가벼운 처벌로 간주된 교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처형당한 해적들은 살가죽이 벗겨진 채 효수되었다. 이러한 잔혹한 처벌은 해적들에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수십 년째 해적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지 못한 관리들을 향한 주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주민들 중에는 관리들이 베트남 여성 인신매매에 연루된 중국인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해적들을 몰래 풀어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처음 체포된 무리의 처형은 선고가 이루어진 당일에 조정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영사는 이처럼 관리들이 형 집행을 서두른 까닭이 자신들을 향한 의심을 씻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코친차이나 총독은 뒤쿠에덕 호와 마쉬 호의 활약에 대해 본국 정부에 보고하면서, 프랑스 해군의 해적 소탕 작전이 “주민들에게 우리의 보호가 주는 혜택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부끄러운 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벌인 노력의 성과를 증명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⁷⁷⁾ 그러나 상황을 더 잘 아는 하이퐁 주재 영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가 보기에는 “우리 해군의 지난 작전에도 불구하고 해적질이 전혀 줄지 않았다.”⁷⁸⁾ 1880년 11월에도 뒤쿠에덕 호가 해적선을 발견하여 공격했으나 해적들이 육지로 도망쳐서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났다.⁷⁹⁾ 프랑스 군함이 통킹만에서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벌이면서 해적들의 활동이 확실히 위축되긴 했지만, 해적을 근절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해적들은 금세 프랑스 군함의 활동 방식을 파악했고, 그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19세기

77) ANOM, Indochine Ancien Fonds, A50(5), Rapport de Charles Le Myre de Vilers,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à l'amiral Bernard Jauréguiberry, ministre de la Marine et des Colonies, 6 mars 1880.

78) ANOM, Indochine Ancien Fonds, A50(5), Rapport de Louis Palasme de Champeaux, 24 mars 1880.

79) ANOM, Indochine Ancien Fonds, A50(5), Rapport d'Alexandre Le Jumeau de Kergaradec, consul de France à Hải Phòng, à Charles Le Myre de Vilers, gouverneur de la Cochinchine, 5 décembre 1880.

중반의 무기 혁명의 결과로 유럽의 화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해도⁸⁰⁾ 실제 전투에서 화력의 우위가 반드시 늘 압도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 해적들은 현지 지리에 더 밝았고, 육지에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줄 인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해군의 감시를 요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불쑥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해적들을 일소하기란 영토의 지배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적들을 상대로 한 프랑스 정부의 싸움은 1883년에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통킹만 해적들의 성격 자체도 바뀌었다.

2.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해적들(1890년대)

1883년 8월 25일 프랑스는 제1차 후에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베트남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그 후로도 베트남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는 데 오랫동안 애를 먹었다. 북부에서는 청군 및 응우옌 왕조에 충성하는 흑기군과 전투가 1885년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응우옌 조정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해 7월 5일 황제의 섭정인 톤탓투엣(Tôn Thát Thuyết)은 어린 황제 함응이(Hàm Nghi)를 데리고 궁을 빠져나가 황제의 이름으로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한 무장 저항을 호소하는 ‘근왕령(勤王令)’을 반포하였다. 그 후 문신(文紳)들이 이끈 의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⁸¹⁾ 또한 1885년에 흑기군의 우두머리인 류응푸는 베트남을 떠났지만, 그의 잔당들과 다른 중국인 비적단들이 프랑스군을 끈질기게 괴롭혔다.⁸²⁾ 프랑스의 베트남

80) Daniel R. Headrick, 김우민 옮김, 『과학기술과 제국주의: 증기선 키니네 기관총』 (전주: 모티브북, 2013), 106쪽.

81) David G. Marr, *Vietnamese Anticolonialism, 1885-192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Charles Fourniau, *Annam-Tonkin, 1885-1896: Lettrés et Paysans Vietnamiens face à la Conquête Coloniale* (Paris: L'Harmattan, 1989). 국내 연구로는 김종욱, 「19세기말 베트남 근왕운동의 실패 원인에 관한 재고찰」, 『동남아연구』, 21권 2호 (2011)를 참조할 수 있다.

82) Bradley Camp Davis, *Imperial Bandits*.

‘평정’ 작업은 1890년대 중엽에야 완료되었다.

프랑스 식민당국은 민족주의적 의병이든 단순한 비적 무리든 가리지 않고, 식민 지배에 대항하는 모든 무장 세력을 ‘해적(pirates)’이라 불렀다. 이는 베트남어의 ‘적(賊 gi c)’의 용법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우옌 왕조에게 ‘적’은 해적이거나 산적뿐 아니라 프랑스인들처럼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쓰이는 개념이었다. 프랑스인들은 이를 ‘해적’으로 번역하여 베트남의 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식민주의의 시각이 오롯이 유럽에서 나온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프랑스 식민주의가 ‘해적’이라는 개념을 베트남에서 자신에 맞서는 모든 무장 세력에 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이 개념이 자신의 목적에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적’이라 불린 이들 중 상당수가 바다와 상관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프랑스 식민주의의 상상계 속에서 베트남 내륙의 무장 집단들은 그 전에 이루어진 프랑스의 효과적인 해적 퇴치로 인해 육지로 도피한 이들이었다. 물론 실제로 내륙의 산적들은 해적들과 별 관계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은 내륙의 ‘해적’ 진압 활동을 그 전에 바다에서 이루어진 해적 진압 활동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었다.⁸³⁾ 더 중요한 점은 ‘해적’이라는 표현이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프랑스에 맞서서 일어난 이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그들을 진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적합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해적’이라는 이름표를 붙임으로써 의병 게릴라는 단지 탐욕이나 절망에 이끌린 범법자로 전락하고, 이로부터 일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프랑스의 숭고한 임무로 격상되었다.⁸⁴⁾

83) Stefan Eklöf Amirel, *Pirates of Empire*, pp. 201-206.

84) Trịnh Văn Thảo, “Lettrés, Rebelles et Autres Bandits face à l’Ordre Colonial: Réflexions sur l’Esprit de Résistance et le Patriotisme Vietnamien”, *Cahiers d’Histoire: Revue d’Histoire Critique*, 126(2015); Julie d’Andurain & Jonathan Krause, “Pirates, Slavers, Brigands and Gangs: The French Terminology of Anticolonial Rebellion, 1880-1920”, *French History*, 31-4(2017).

그렇지만 프랑스인들이 그들이 ‘해적’이라 부르는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891년에 앙리 프레(Henry Frey) 대령은 “인도차이나의 유럽인들은 방랑자의 삶에 이끌려서 법의 무력함에 도전하고, 무장 집단을 이루어 통킹의 육지나 해안 혹은 강에서 약탈을 일삼는 도둑, 강도, 밀수꾼과 온갖 모험꾼들을 국가의 독립을 다시 쟁취하고자 프랑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이들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해적’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지적하였다.⁸⁵⁾ 그렇지만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그러한 일을 벌이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정치적 반란자들과 해적을 비롯한 비적 집단의 활동 방식은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양자가 프랑스인들을 물리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동맹을 맺는 일도 흔했다.⁸⁶⁾

기존의 연구들이 베트남 북부의 산간지대에서 펼쳐진 저항과 ‘평정’ 과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킹만의 해안과 도서 지역 역시 치열한 투쟁의 공간이었다.⁸⁷⁾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베트남의 바다에도 프랑스인들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해적’들이 나타났다. 물론 정치적 투쟁의 일환으로 해적 활동을 벌이는 이러한 ‘정치적 해적’이 통킹만에 등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었다. 18세기 말에 떠이선에 협력한 해적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더 멀리 17세기 후반에는 타이완 섬에서 활동했던 정성공(鄭成功)처럼 통킹만에도 남명(南明) 세력에 충성하거나 그와 동맹을 맺고 청조에 저항하는 해적들이 활동했었다.⁸⁸⁾

85) Henry Frey, “L’Organisation de la Piraterie au Tonkin”, *Revue des Deux Mondes*, 108(1891), p. 436.

86) Micheline Lessard, *Human Trafficking in Colonial Vietnam*, p. 49; Bradley Camp Davis, *Imperial Bandits*, pp. 129-132.

87) 내륙 지역에서 벌어진 저항과 ‘평정’ 과정에 대해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연구로는 앞서 인용한 데이비스의 연구 외에 다음의 저서를 들 수 있다. Michael P. M. Finch, *A Progressive Occupation? The Gallieni-Lyautey Method and Colonial Pacification in Tonkin and Madagascar, 1885-1900*(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88) Niu Junkai & Li Qingxin, “Chinese “Political Pirates” in the Seventeenth-

프랑스 식민 지배 초기에 톡킹만에서 그에 끈질기게 저항했던 대표적인 ‘정치적 해적’으로는 띠엔득(Tiên Đức)이라는 인물이 있다. 식민당국의 문서에 따르면 띠엔득은 1870년대부터 깃바 섬에서 ‘왕 같은 권력을 행사’ 해왔다. 그의 권력은 깃바 섬을 넘어서 하롱 만과 바이뜨롱 만의 여러 섬에 두루 미쳤으며, 중국인 해적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는 자신의 세력 범위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수취하는 한편, 지나는 어선과 상선을 약탈하거나 본토의 해안가 마을에 상륙해서 젊은 여성과 아이를 납치하여 중국 해적들에게 팔아넘기곤 하였다.⁸⁹⁾ 그렇지만 그는 단순한 해적은 아니었다. 근왕령 반포 후 그는 함응이 황제에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프랑스와 맞서 싸우는 하이즈영 성과 팡옌 성의 수장”으로 칭하였다.⁹⁰⁾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제독(dé đốc 提督)’이나 ‘영병(領兵 lãnh binh)’ 같은 호칭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즉 띠엔득과 그의 무리는 마치 국가 권력처럼 행동하였다.

1890년 7월에 프랑스 당국은 깃바 섬에 진치고 있는 띠엔득과 그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톡킹만의 해적들을 시급히 소탕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1888년부터 하롱만에 연한 혼가이(Hòn Gai)와 께바오에서 탄광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석탄은 톡킹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손꼽혔고, 많은 이들이 이 사업의 경과에 주목하고 있었다. 식민당국으로서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프랑스 탄광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⁹¹⁾

Century Gulf of Tongking”, Nola Cooke, Tana Li & James A. Anderson, ed.,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89) ANOM, Gouvernement Général de l’Indochine, 22373, Rapport de Raoul Bonal, résident supérieur par intérim au Tonkin, à Georges Piquet, 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20 aout 1890.

90) ANOM, Résidence Supérieur au Tonkin Ancien Fond, 27655, Rapport de Domergue, vice-résident de France à Quáng Yên, à Léon Chavassieux, résident supérieur au Tonkin, sur la situation de la province pendant le mois de mars 1892, 26 mars 1892.

91) 정재현, 「식민지 시기 초기 톡킹 탄광 개발의 난관과 식민국가의 역할

그리하여 통킹 통사(Résident supérieur, thống sứ) 라울 보날(Raoul Bonnal)의 지휘 하에 8백 명이 넘는 인원과 여러 척의 군함이 동원된 대규모 소탕 작전이 한 달 넘게 펼쳐졌다. 프랑스 경비대는 섬의 남쪽과 북쪽으로 병력을 나누어서 상륙하여 띠엔득이 있는 요새를 공격하였지만, 험준한 지형과 완강한 저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해적들에 동조한다는 의심을 받은 마을들은 깡그리 불태워졌으며, 생포된 해적들은 약식 재판을 거쳐서 곧바로 처형되었다. 그럼에도 띠엔득은 항복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군함들의 포위망을 뚫고 섬을 몰래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였다. 프랑스 관리들은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해적’들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인신매매와 밀수에 손대지 말고 “프랑스의 보호 아래에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라고 일렀다. 작전 종료 후 깃바 섬에는 총 120명의 병력이 배치된 초소 두 개가 설치되었다. 보날은 이 작전을 통해 깃바 섬의 ‘해적’ 무리가 완전히 일소되었으며, 띠엔득이 도망치긴 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위엄을 상실하여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평하였다.⁹²⁾

그렇지만 깃바 섬 소탕 작전으로 평판이 추락한 것은 띠엔득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프랑스 당국이었다. 실제로 그 후로도 통킹만 일대에서 띠엔득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해적들의 활동은 띠엔득과 함께 하이남 섬으로 달아났던 띠엔득 무리의 이인자인 데홍(Đê Hồng)이 1891년에 하롱만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 후로 해안가 마을이나 선박이 습격당하는 일이 늘었고, 납치한 여성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던 배가 식민당국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⁹³⁾ 특히 혼가이와 께바오 광산의 노동자 마을에 대한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탄광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돈이나 쌀을 상납해야 했다.⁹⁴⁾ 해적들은 약탈한 재화와 납치한 여성들의

(1883~1914)」, 『프랑스사 연구』, 41호(2019).

92) ANOM, Gouvernement Général de l'Indochine, , 22373, Rapport de Raoul Bonal, 20 aout 1890.

93) *Journal des Débats Politiques et Littéraires*, 27 avril 1891.

94) *Le Courrier d'Haiphong*, 18 février 1892.

몸값으로 장만한 총기로 무장하였다. 영국이 홍콩을 차지하고 자유항으로 선포한 뒤로는 돈만 있다면 총기와 화약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프랑스 군함이 정기적으로 통킹만을 순찰하였으나, 수많은 섬들 사이로 난 좁은 해로를 모두 감시할 수는 없었다. 해적들이 이용하는 흘수가 낮고 작은 배들은 이러한 바다에서는 거대한 프랑스 군함보다 훨씬 유리했다. 띠엔득이나 데홍처럼 명성이 있는 지도자는 수백 명의 해적들을 추종자로 거느렸으나 실제로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해적 무리는 대체로 백 명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프랑스군과 정면으로 맞붙기 어렵지만, 치고 빠지기 식으로 공격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다. 해적들의 게릴라 전술은 프랑스군이 통킹만 연안의 섬들과 해안가 마을들을 모두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해적들의 활동이 거세지자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에르네스트 푸르니에(Ernest Fournier) 제독은 해적섬들을 정벌하고, 항해와 무역의 안전을 보장하며, 내륙의 비적들이 바다를 통해 중국과 왕래하는 것을 막고, 탄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해적들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데홍의 체포였다. 프랑스 해군은 통킹만의 수많은 섬들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번돈 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바문((Ba Mùn) 섬에서 그를 발견하였지만, 데홍은 대나무 뗏목을 이용해서 다른 섬으로 달아나버렸다. 그 후로도 통킹만 이곳저곳을 신출귀몰하게 옮겨 다니는 데홍과 프랑스군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프랑스군은 생포한 데홍의 부하로부터 그가 숨은 섬을 알아내서 1892년 2월에 마침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⁹⁵⁾ 데홍은 그 해 6월 8일에 처형되었다.⁹⁶⁾

95) *Journal des Débats Politiques et Littéraires*, 15 mars 1892.

96) ANOM, Résidence Supérieure au Tonkin Ancien Fond, 27655, Rapport de Gaston Benoit, vice-résident de France à Quáng Yên, à Léon Chavassieux, résident supérieur au Tonkin, sur la situation de la province pendant le mois de juin 1892, 1er juillet 1892.

하롱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여러 해적 무리의 우두머리로 인정받았던 데홍이 붙잡히자 해적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렸으며, 여러 무리가 난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적들의 활동이 곧바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1892년 4월 26일에는 데홍의 추종자로 알려진 해적 무리 약 150명이 판란(Quan Lạn) 섬을 습격하여 가옥 약 스무 채를 불태우고, 주민 4명을 죽인 뒤 백 명도 넘는 주민들을 납치해 간 사건이 일어났다.⁹⁷⁾ 그리고 그 해 11월 13일 밤에는 무장한 해적 약 200명이 혼가이 광산의 노동자 마을을 습격한 일도 있었다.⁹⁸⁾ 그 외에도 작은 규모의 약탈 행위들이 통킹만의 섬들과 해안 지방에서 1893년 초까지 수도 없이 벌어졌다.

띠엔득이나 데홍, 또는 그들의 뒤를 이어 통킹만에서 활동했던 해적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들은 프랑스 식민 지배가 확립되는 것을 거세게 방해했지만,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아편 밀수, 약탈, 인신매매, 방화,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의 폭력 행사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에게 순순히 협조하는 이들에게는 ‘평화적’으로 ‘세금’만 걷고, 프랑스 당국에 협조하거나 밀고하는 이들에게만 가혹한 응징을 가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일어난 모든 해적 행위가 순수하게 반식민 투쟁의 일환이었다고만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적어도 띠엔득을 비롯한 일부 해적 우두머리에게 프랑스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은 사료들만으로는 이 해적들의 정치적 동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을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은 도덕적이고 숭고한 애국자와 잔혹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범법자라는 두 표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들을 단순한 범법자로

97) ANOM, Résidence Supérieure au Tonkin Ancien Fond, 27655, Rapport de Gaston Benoit, vice-résident de France à Quảng Yên, à Léon Chavassieux, résident supérieur au Tonkin, sur la situation de la province pendant le mois d'avril 1892, 1er mai 1892.

98) ANOM, Résidence Supérieure au Tonkin Ancien Fond, 27655, Rapport de Gaston Benoit, vice-résident de France à Quảng Yên, à Léon Chavassieux, résident supérieur au Tonkin, sur la situation de la province pendant le mois de novembre 1892, 7 décembre 1892.

매도하는 것이 식민주의의 담론이었다면, 이들을 반식민 투쟁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그에 대한 기계적인 전도일 뿐이다.

통킹만에서 프랑스 식민 지배의 확립을 오랫동안 방해했던 해적들의 활동은 1893년 중엽이 되면 크게 약화된다. 프랑스 당국이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 곳곳에 설치한 초소들과 해상 경비 임무를 띤 군함들의 존재는 해적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점차 축소시켰다. 동시에 여러 해적 우두머리들 간에 내분이 발생하고, 그 중에 투항자가 나온 것도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였다. 투항한 해적이 식민당국에 넘긴 정보는 다른 해적들을 잡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식민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면서 해적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연결고리가 점차 차단된 것도 해적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요컨대 해적들의 세력이 약화된 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기보다는 베트남의 땅과 바다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가 점차 확고해진 결과였다. 1890년대 중엽 이후에는 그 전까지 ‘해적들의 소굴’로 불렸던 깃바 섬, 번돈 제도, 꼬또 섬을 근거지로 삼는 조직적인 해적 무리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럼에도 통킹만에서 해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식민당국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곳, 예를 들어 더 북쪽에 위치한 로쭈산 섬이나 중국 국경 너머를 거점으로 하는 해적들이 때때로 하룻만까지 내려와서 마을과 배들을 약탈하는 일이 식민지 시기가 끝날 무렵까지도 종종 계속되었다.

III. 맺음말

통킹만의 해적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19세기 중엽에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 세력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국가 권력과 경제·사회 구조가 동요한 데 따른 결과였다. 재물을 빼앗기거나 납치당한 피해자들에게 해적은 재앙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해적질이 불가피한 삶의 방식이었다. 해적들의 활동은 해안가와 섬에 사는 많은 주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킹만의 해적들은 중국과 베트남 당국, 나중에는 프랑스 식민당국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서 국가 권력에 도전하였다. 이들에게 국가가 정한 국경은 무의미했으며, 오히려 국경 너머로 도피하여 국가 권력의 행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장치였다. 그동안 통킹만의 해적 현상은 중국 해적이 베트남의 영토를 유린하는 일종의 외침으로 주로 이해되었지만, 해적들의 국적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은 국가 중심적인 접근일 뿐이다. 통킹만의 해적들은 중국인이 주축이 되었지만 베트남인도 있었고, 베트남뿐 아니라 중국의 선박과 마을도 공격 대상이 되곤 하였다.

1870년대부터 북부 베트남에 대해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해적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프랑스 식민 당국에게 통킹만의 해적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직간접적으로 도전하는 존재이자 안정적인 무역 활동과 경제 개발을 방해하는 존재였으며, 베트남 주민들에게 프랑스 식민 지배의 혜택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존재였다. 그렇지만 해적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해적과 싸움에서 프랑스 당국이 가진 이점이 군사력의 우위라면, 해적들은 현지 지리에 대한 우월한 지식과 지역 주민들과 밀착 관계라는 패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의 주권을 강탈한 후 통킹만 해적들의 활동 양상도 바뀌었다. 해적들은 더욱 강력한 국가 권력에 대응하는 법을 익혀야 했고, 동시에 그 국가 권력에 맞서는 것 자체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는 해적들이 베트남의 바다에 등장하였다. 정치적 반란자들은 해적들의 전술을 모방하였고, 해적들은 정치적 반란자들이 내세우는 대의를 제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두 세력이 뒤섞인 채 프랑스 식민 지배에 도전하는 상황은 189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식민 권력은 더욱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취해야만 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 jeoung.jaehyun@gmail.com

주제어(Key words):

통킹만(gulf of Tonkin), 해적(pirates), 프랑스 식민주의(French colonialism), 응우옌 왕조(Nguyen dynasty), 반식민 운동(anticolonial movement)

(투고일: 2020.04.20, 심사일: 2020.05.03, 게재확정일: 2020.05.06.)

<국문초록>

19세기 통킹만의 해적들과 프랑스 식민주의
-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초민족적 대항 권력의 역사 -

정재현

오랜 역사를 지닌 통킹만의 해적들은 19세기 중엽에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 세력이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국가 권력과 경제·사회 구조가 동요한 데 따른 결과였다. 통킹만의 해적들은 초민족적 집단이었으며, 국가 권력에 도전하였다. 1870년대부터 북부 베트남에 대해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해적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프랑스군이 해적들에 비해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었다고 해도, 현지 지리를 잘 알고 지역 주민들과 밀착된 해적들을 단속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프랑스가 베트남의 주권을 강탈한 후 통킹만의 해적들은 식민 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였으며, 이들을 일소하기 위해 식민 권력은 더욱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취해야만 했다.

<Abstract>

Pirates of the Gulf of Tonkin in 19th Century:
A History of the Transnational Counterpower against the
State Power

Jeoung, Jaehyun

The piracy, having a long history in the Gulf of Tonkin, prospered again in the mid-19th century. This was due in part to the collapse of state powers and the disruption of socio-economic structures of the region as a result of European penetration. France, which has demonstrated its imperialist ambitions in northern Vietnam since the 1870s, could no longer accept their activities. However, even if the French had military superiority over the pirates, it was not easy to suppress them, especially since they were better acquainted with the local geography and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local populations. As France conquered the kingdom of Vietnam, the pirates of the Gulf of Tonkin directly opposed colonial power, which therefore had to adopt a more rigorous and violent policy to repress the pirates.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문서보관소

Archives Nationales d’Outre-Mer, Amiraux, 10459, 14086, 14090.
Archives Nationales d’Outre-Mer, Gouvernement Général de
l’Indochine, 22373, 40759.
Archives Nationales d’Outre-Mer, Indochine Ancien Fonds, A50(5).

단행본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ocuments Diplomatiques: Affaires du Tonkin, 1: 1874-décembre 1882* (Paris: Imprimerie nationale, 1883).
Reinach, Lucien de, ed., *Recueil des traités conclus par la France en Extrême-Orient, 1: 1684-1902* (Paris: Ernest Leroux, 1902).
Romanet du Caillaud, Frédéric, *Histoire de l’Intervention Française au Tong-King de 1872 à 1874* (Paris: Challamel ainé, 1880).
Viện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Viện Sử học, *Đại Nam Thực Lục*, 6, 7 (Hà Nội: Nxb. Giáo dục, 2007).

정기 간행물

Frey, Henry, “L’Organisation de la Piraterie au Tonkin”, *Revue des Deux Mondes*, 108(1891).
Journal des Débats Politiques et Littéraires, 27 avril 1891; 15 mars 1892.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4 aout 1874.
Le Courrier d’Haiphong, 18 février 1892.
“Missions du Tong-King”,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23(1851).

Senez, Émilien, “De Saigon au Nord du Tonquin: Voyage du Bourayne (23 Janvier-16 Février 1872)”, *Revue Maritime et Coloniale*, 34(1872).

Senez, Émilien, “Rapport Nautique sur l’Exploration des Côtes de Cochinchine et du Golfe du Tonquin: Rapport du Commandant de l’Aviso le Bourayne (Octobre et Novembre 1872)”, *Revue Maritime et Coloniale*, 37(1873).

2. 단행본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Braudel, Fernand, 남중국 윤은주 옮김,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II권 집단적 운명과 전체적 움직임』 (서울: 까치, 2017).

Headrick, Daniel R., 김우민 옮김, 『과학기술과 제국주의: 증기선 키니네 기관총』 (전주: 모티브북, 2013).

Hombrowm, Eric, 이수영 옮김, 『밴디트: 의적의 역사』 (서울: 민음사, 2004).

Murray, Dian H., 이영옥 옮김, 『그들의 바다: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서울: 심산, 2003).

Antony, Robert J., *Like Froth Floating on the Sea: The World of Pirates and Seafarers in Late Imperial South China* (Berkele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

Antony, Robert J., ed., *Elusive Pirates, Pervasive Smugglers: Violence and Clandestine Trade in the Greater China Sea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Cooke, Nola & Tana, Li, ed., *Water Frontier: Commerce and the Chinese in the Lower Mekong Region, 1750-1880*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 Davis, Bradley Camp, *Imperial Bandits: Outlaws and Rebels in the China-Vietnam Borderland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7).
- Duranthon, Evelyne, *Les Charbonnages de Kebao (Tonkin)* (Mémoire de maîtrise, Université Paris 7, 1971).
- Eklöf Amirel, Stefan, *Pirates of Empire: Colonisation and Maritime Violence in Sou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Finch, Michael P. M., *A Progressive Occupation? The Gallieni-Lyautey Method and Colonial Pacification in Tonkin and Madagascar, 1885-19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Frécon, Eric, *Pavillon noir sur l'Asie du Sud-Est* (Paris: L'Harmattan, 2002).
- Fourniau, Charles, *Annam-Tonkin, 1885-1896: Lettrés et Paysans Vietnamiens face à la Conquête Coloniale* (Paris: L'Harmattan, 1989).
- Fourniau, Charles, *Vietnam: Domination Coloniale et Résistance Nationale, 1858-1914* (Paris: Les Indes savantes, 2002).
- Kleinen, John & Manon Osseweijer, ed., *Pirates, Ports, and Coasts in Asi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0).
- Lessard, Micheline, *Human Trafficking in Colonial Vietnam* (New York: Routledge, 2015).
- Marr, David G., *Vietnamese Anticolonialism, 1885-192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Nguyễn Thế Anh, *Monarchie et Fait Colonial au Viêt-Nam (1875-1925): Le Crépuscule d'un Ordre Traditionnel* (Paris: L'Harmattan, 1992).
- Nguyễn Thị Hạnh, *Les Conflits Frontaliers Sino-Vietnamiens de*

1885 à Nos Jours (Paris: Éditions Demopolis, 2018).

Tsuboi Yoshiharu, *L'empire Vietnamien face à la France et à la Chine* (Paris: L'Harmattan, 1987).

Viện Sử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6: Từ Năm 1858 Đến Năm 1896* (Hà Nội: Nxb. Khoa học xã hội, 2013).

Zhang Leiping, *Trade and Security in Sino-Vietnamese Relation (1802-1874)* (Ph. D.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08).

3. 논문

김종욱, 「19세기말 베트남 근왕운동의 실패 원인에 관한 재고찰」, 『동남아연구』, 21권 2호(2011).

노영순, 「청불전쟁(1884~1885년) 전후 중국-베트남 국경문제와 획정과정」, 『북방사논총』, 4호(2005).

노영순, 「베트남 뜨득 황제 전반기의 관료군주제 고찰 군주와 고위관료가 내우외환, 개혁, 실지회복에 대처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총』 76집(2012).

정재현, 「식민지 시기 초기 통킹 탄광 개발의 난관과 식민국가의 역할 (1883~1914)」, 『프랑스사 연구』, 41호(2019).

조흥국 최용태, 「19세기 이전 동남아시아 해적에 관한 역사적 고찰」, 『동남아연구』, 21권 2호(2011).

Anderson, J. L., "Piracy and World History: An Economic Perspective on Maritime Predation", *Journal of World History*, 6-2(1995).

Andurain, Julie d' & Krause, Jonathan, "Pirates, Slavers, Brigands and Gangs: The French Terminology of Anticolonial Rebellion, 1880-1920", *French History*, 31-4(2017).

Antony, Robert J., "Giang Binh: Pirate Haven and Black Market on the Sino-Vietnamese Frontier, 1780-1802", John Kleinen

- & Manon Osseweijer, ed., *Pirates, Ports, and Coasts in Asi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0).
- Antony, Robert J., “Maritime Violence and State Formation in Vietnam”, Stefan Eklöf Amirel & Leos Müller, ed., *Persistent Piracy: Maritime Violence and State-Formation in Global Historical Perspective* (Houndmill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4).
- Antony, Robert J., “The Shadowy World of the Greater China Seas”, Robert J. Antony, ed., *Elusive Pirates, Pervasive Smugglers: Violence and Clandestine Trade in the Greater China Sea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 Antony, Robert J., “Violence and Predation on the Sino-Vietnamese Maritime Frontier, 1450-1850”, *Asia Major*, 27-2(2014).
- Chappell, Jonathan, “Maritime Raiding, International Law and the Suppression of Piracy on the South China Coast, 1842-1869”,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40-3(2018).
- Kleinen, John & Osseweijer, Manon, “Pirates, Ports, and Coasts in Asia”, John Kleinen & Manon Osseweijer, ed., *Pirates, Ports, and Coasts in Asi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0).
- Li, Tana, “The Water Frontier: An Introduction”, Nola Cooke & Tana Li, ed., *Water Frontier: Commerce and the Chinese in the Lower Mekong Region, 1750-1880*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 Li, Tana,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A Geopolitical Overview”, Nola Cooke, Tana Li & James A. Anderson, ed.,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 Margolin, Jean-Louis, “Piraterie en Asie Orientale (XIVe-XIXe

- Siècle)”, Gilbert Buti & Philippe Hroděj, dir., *Histoire des Pirates et des Corsaires: De l’Antiquité à Nos Jours* (Paris: CNRS Éditions, 2016).
- Murray, Dian, “One Woman’s Rise to Power: Cheng I’s Wife and the Pirates”, *Historical Reflections/Réflexions Historiques*, 8–3(1981).
- Nguyễn Thị Mỹ Hạnh, “The Anti-Piracy Activities of the Nguyen Dynasty in the South China Sea, 1802–1858”,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31–1(2019).
- Niu Junkai & Li Qingxin, “Chinese “Political Pirates” in the Seventeenth-Century Gulf of Tongking”, Nola Cooke, Tana Li & James A. Anderson, ed.,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 Reid, Anthony, “Violence at Sea: Unpacking “Piracy” in the Claims of States over Asian Seas”, Robert J. Antony (ed.), *Elusive Pirates, Pervasive Smugglers: Violence and Clandestine Trade in the Greater China Sea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 Teitler, Ger, “Piracy in Southeast Asia: A Historical Comparison”, *Maritime Studies*, 1–1(2002).
- Trịnh Văn Thảo, “Lettrés, Rebelles et Autres Bandits face à l’Ordre Colonial: Réflexions sur l’Esprit de Résistance et le Patriotisme Vietnamien”, *Cahiers d’Histoire: Revue d’Histoire Critique*, 126(2015).
- Vũ Đường Luân & Nola Cooke, “Chinese Merchants and Mariners in Nineteenth-Century Tongking”, Nola Cooke, Tana Li & James A. Anderson, ed., *The Tongking Gulf through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 Warren, James F., “A Tale of Two Centuries: The Globalization of Maritime Raiding and Piracy in Southeast Asia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Peter Boomgaard, ed., *A World of Water: Rain, Rivers and Seas in Southeast Asian Histories* (Leiden: KITLV Press, 2007).

Wheeler, Charles, “Identity and Function in Sino-Vietnamese Piracy: Where Are the Minh Hương?”,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16(2012).